



Brief

발행일_ 2015. 3. 16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정기택

보건산업브리프 Vol. 168

통계분석 | 동향·전망 | 인력·정책

2014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의료수출지원실 의료수출기획팀
황성은, 이아름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1) 조사배경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은 '14년 기준 19개국에 125건 진출하여 '10년의 11개국 58건 진출 대비 115%이상 증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2) 조사목적

-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 현황 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 및 지원방안 수립의 기초데이터로 활용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II 조사 범위와 방법 ...

(1) 조사범위

- '14년 11월~'15년 1월, 137개 관련기관 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자체조사 실시
 - 대상기관은 '13년 기진출 또는 진출예정 프로젝트 주관기관, '11년부터 '14년까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기관과 그 외 해외진출 관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2) 조사방법

- 137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설문조사 실시

'14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은 국내 48개 기관에서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19개국에 125개 의료기관이 진출하였으며, 단독, 라이선싱(브랜드), 프랜차이징을 주요 진출 형태로 함

'12년~'14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안과, 이비인후과, 줄기세포 치료, 골수이식 등 신규과목 진출로 진료과목이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해외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음

국내 의료기관은 해외진출시 크게 정책·법률, 자금, 네트워크, 정보제공, 인력, 해외진출서비스 및 마케팅 부문에서 정부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및 기업 해외진출 담당자 대상 공문 및 설문지 발송 후, 이메일 답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수렴 및 유선을 통한 심층설문 실시

Ⅲ 결과 분석 내용

가. 국내 의료기관 진출 현황

(1) 2014년 해외진출 운영기관 조사결과(기진출)

- ◎ '14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수는 총 125건으로, '13년 111건에서 '14년 125건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건 증가(12.6%)
 - 설문조사에 응답한 81개 기관 중, 48개 기관에서 125건 해외진출
 - '13년도 111건 중 진출운영 유지 81건, 철수 30건, '14년 신규 발굴 44건

〈표 1〉 2014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조사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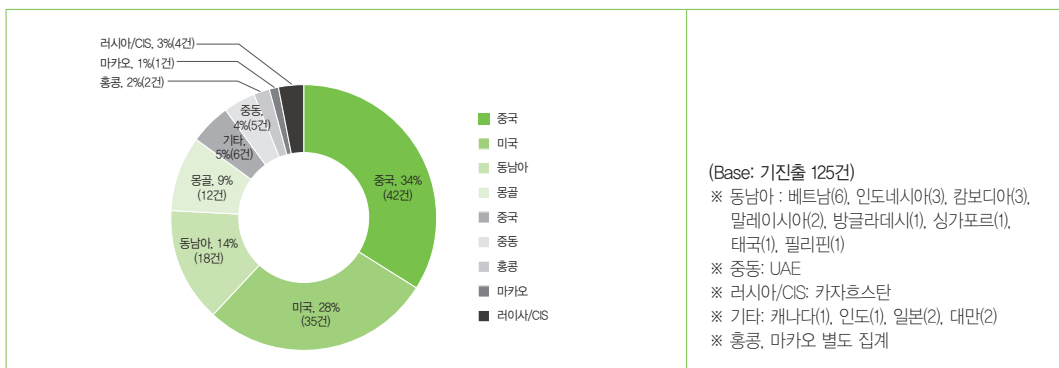
	'13년도 발굴	'14년도 신규발굴	합계
진출운영 중	81	44	125
진출예정		27	27
철수	30	4	34
총 프로젝트 수	111	75	186

(2) 2014년 해외진출 운영기관 현황

-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국가는 총 19개국(홍콩, 마카오 별도 집계)
- ◎ 국가별 진출건수는 중국, 미국, 동남아, 몽골, 중동, 러시아/CIS 순으로 나타나며, 중국, 미국에 대한 진출이 전체 해외진출 대상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3) 진출형태별 진출현황

-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국가는 총 19개국(홍콩, 마카오 별도 집계)



[그림 1] 2014 국가별 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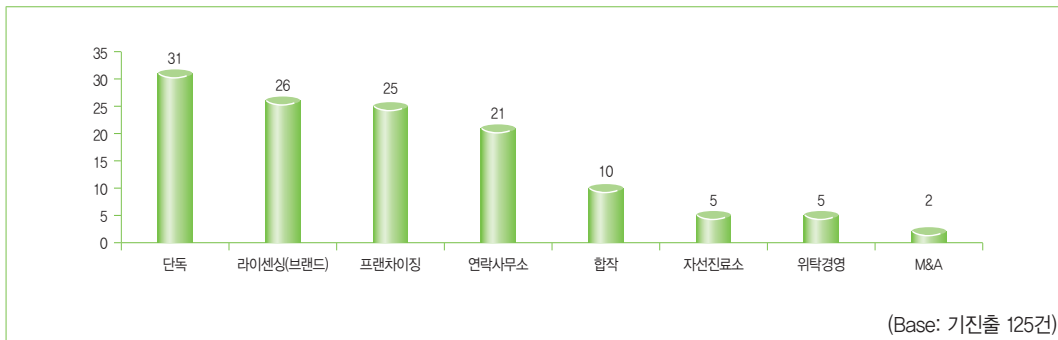
◎ 자본투자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진출형태를 분류

※ 진출형태가 정립되지 않아 '13년도까지 기술전수, 연락사무소, 원내원, 운영컨설팅 등의 용어 혼재되어 사용

〈표 2〉 '14년도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조사시 진출형태 분류

구분	진출형태	내용
자본투자 有	단독투자形 (Sole Venture)	해외직접투자(FDI형태)로 지분 100% 보유, 단독법인 설립
	합작투자形 (Joint Venture)	자본, 자원, 투자이익 공유하며 합작법인 설립
	M&A形	기존 병원의 인수합병
자본투자 無 (계약 형태)	라이선스形	무형자산(의료기술, 브랜드 등) 이전의 댓가로 로열티 수령
	위탁경영形 (O&M)	무형자산 이전+경영, 관리시스템 등 포함하여 참여, 합작투자자와 결합가능
	일괄수주形 (Turn-Key)	병원건설+운영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
	프랜차이즈形	가맹계약 체결
특수형태	기타形	환자유치 연락사무소, 자선진료소, ODA(EDCF, KOICA 원조)사업

- '14년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진출형태는 단독투자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라이선스(브랜드), 프랜차이즈, 연락사무소 상위 4개 형태가 82.4%를 차지



[그림 2] 2014 진출형태별 진출현황

〈표 3〉 2014 국가별 진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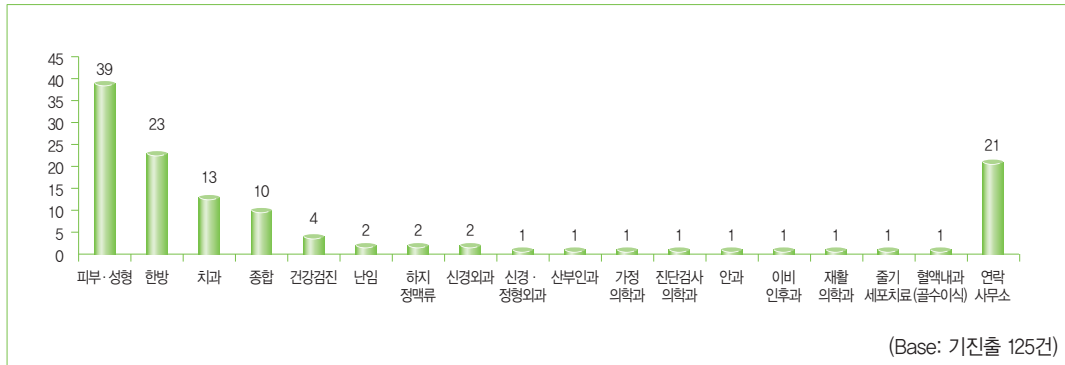
국가별	단독	라이선싱 (브랜드)	프랜차이즈	연락사무소	합작	위탁경영	자선진료소	M&A	합계
중국*	4	11	15	7	6	2			45
미국	19	7	5	2				2	35
몽골	2	3		5	1		1		12
동남아	3	3	1	5	2	1	3		18
UAE		1		2		2			5
카자흐스탄	1	1			1		1		4
기타*	2		4						6
합계	31	26	25	21	10	5	5	2	125

※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 기타: 캐나다, 인도, 일본, 대만 포함

(4) 진료과목별 진출현황

- 해외 진출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성형이 3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 치과, 종합, 건강검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줄기세포 치료, 골수이식 등의 진료과목이 신규 진출했음



[그림 3] 2014 진료과목별 진출현황

- 현지에서 상담을 통해 환자를 한국으로 송출하거나 해외진출 초기단계로서의 연락사무소 형태가 21건으로 전체 진출건의 16.8%를 차지

<표 4> 2014 국가별 진료과목 진출현황

국가별	피부·성형	한방	치과	종합	자선진료소	건강검진	난임	하지정맥류	신경외과	신경정형외과	산부인과	가정외과	진단검사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줄기세포치료	혈액내과	연락사무소	합계
중국	29	1	1	1		2		2						1	1				7	45
미국		19	10	1			2					1							2	35
몽골	1		1	2	1	1												1	5	12
동남아	7				3				1		1		1						5	18
UAE				1					1							1			2	5
카작		1			1	1				1										4
기타	2	2	1														1			6
합계	39	23	13	5	5	4	2	2	2	1	1	1	1	1	1	1	1	1	21	125

※피부·성형: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성형을 모두 포함
 ※치과: 치과·성형 포함
 ※종합: 종합, 자선진료소(종합진료)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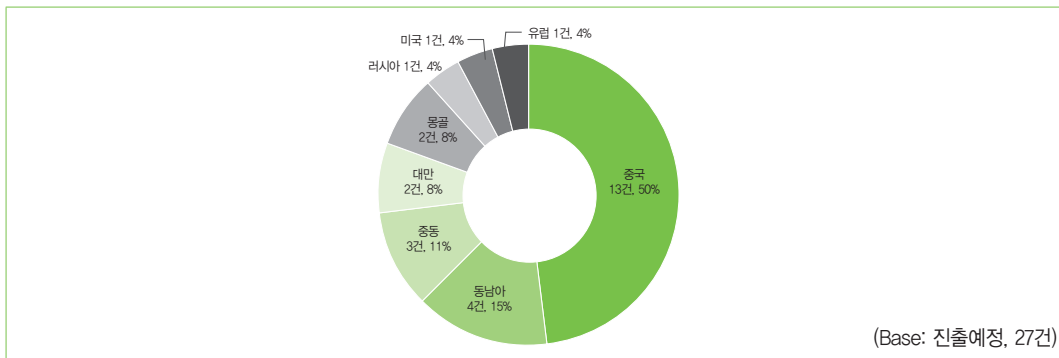
나. 해외진출 예정기관 현황

(1) 해외진출 준비기관 조사결과(진출예정)

- '14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진출 준비 건수는 총 27건
 - 조사에 응답한 81개 기관의 중 19개 기관에서 27건의 해외진출을 준비 중

(2) 국가별 진출예정 현황

- ⊙ 중국 진출 예정 프로젝트가 전체 진출예정 프로젝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50%), 동남아(15%), 중동(11%), 대만·몽골(8%), 러시아·미국(4%), 유럽(4%) 순임
 - 중국의 경우, 옌타이(煙台)시 진출 예정 프로젝트가 가장 많으며, 이외 중·소도시 중에서는 이싱(宜興)시 진출이 준비 중임
 - MENA 지역의 경우 이라크, 알제리 등 종합병원 형태의 진출이 준비 중임
 - 유럽지역의 경우, 최초의 종합병원 형태의 진출이 준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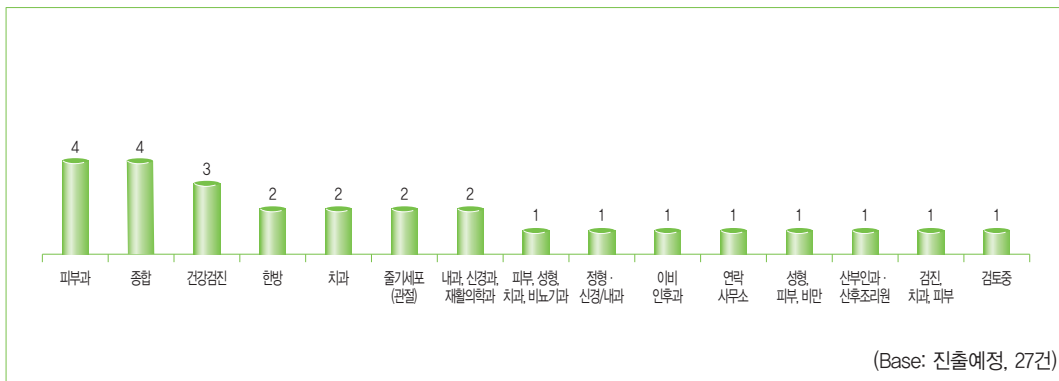


※동남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림 4] 2014 국가별 진출준비 현황

(3) 진료과목별 진출예정현황

- ⊙ 피부과 진출 준비 건이 가장 많으며, 피부과 진료과목과 더불어 여성 미용분야에 특화된 성형, 치과, 검진, 비만 등의 진료과목의 동반진출이 예상



[그림 5] 2014 진료과목별 진출준비 현황

- ⊙ 다양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중국진출을 준비하고있는 의료기관이 많았으며 동남아지역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 줄기세포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2014 국가별 진료과목별 진출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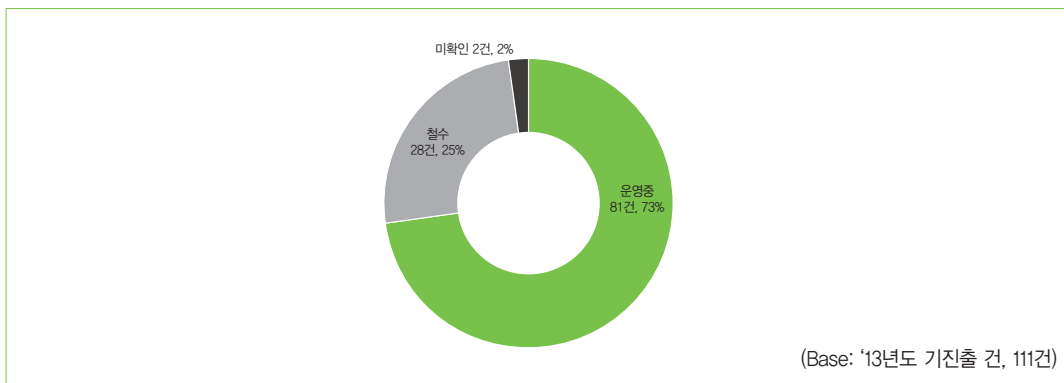
국가별	피부과	종합	건강검진	한방	치과	줄기세포(관절)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피부, 성형, 치과, 비뇨기과	정형신경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연락사무소	성형, 피부, 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검진, 치과, 피부	검토중	합계
중국	2	1	1		2	1	2	1				1	1	1		13
동남아		1	1	1		1										4
중동		1	1												1	3
대만	2															2
몽골									1	1						2
러시아											1					1
미국				1												1
유럽		1														1
합계	4	4	3	2	2	2	2	1	1	1	1	1	1	1	1	27

(Base: 진출예정, 27건)

다. 철수 현황

(1) 2014년 해외진출 준비기관 조사결과(철수)

- '13년도 기진출 111건에서 28건이 철수, 2건은 파악불가로 확인, '13년도 기진출 111건의 25%가 철수
- 국가별로는 중국(15), 미국(5), 카작(2), 러시아(2), UAE(1), 몽골(1), 베트남(1), 네팔(1)으로 나타남
-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징(8), 라이선싱(브랜드)(7), 합작(5), 단독(4), 연락사무소(2), 위탁경영(1), 자선진료소(1)으로 나타남
-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9), 치과(5), 종합(4), 건강검진(2), 한방(2), 암(2), 연락사무소(2), 임상병리진단(1), 가정의학과(1)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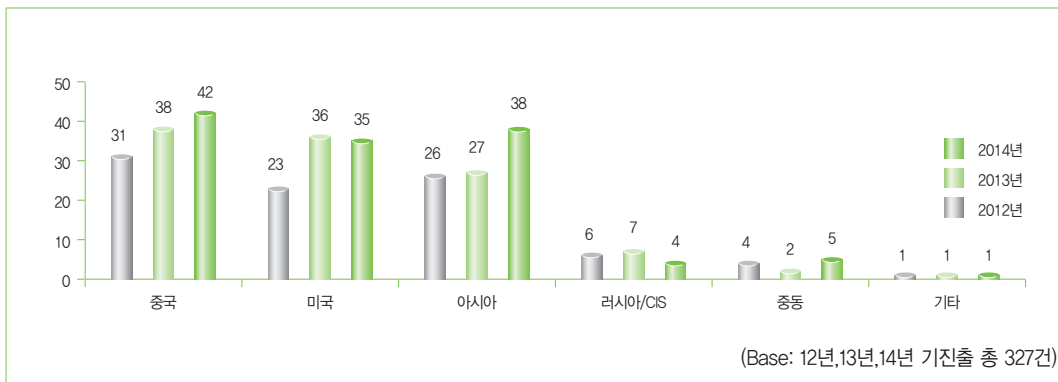
(Base: '13년도 기진출 건, 111건)

[그림 6] '13년도 기진출 기관 철수 현황

라. '12년~'14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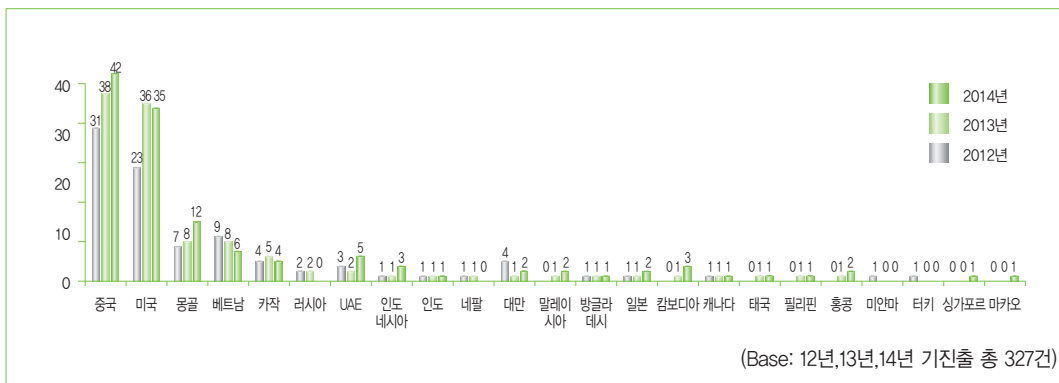
(1) 국가별

- ◎ '12년 16개국에서 '13년 19개국으로 진출국가 증가, '14년 진출국가는 '13년도와 동일하게 19개국 진출
- ◎ '14년도 주요 진출국은 '12년도, '13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대한 진출은 G2G 협력으로 UAE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홍콩에 대한 진출 증가로 아시아 권역으로의 진출 증가



※아시아 :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미얀마, 싱가포르, 마카오
 ※중동: UAE, 터키
 ※기타: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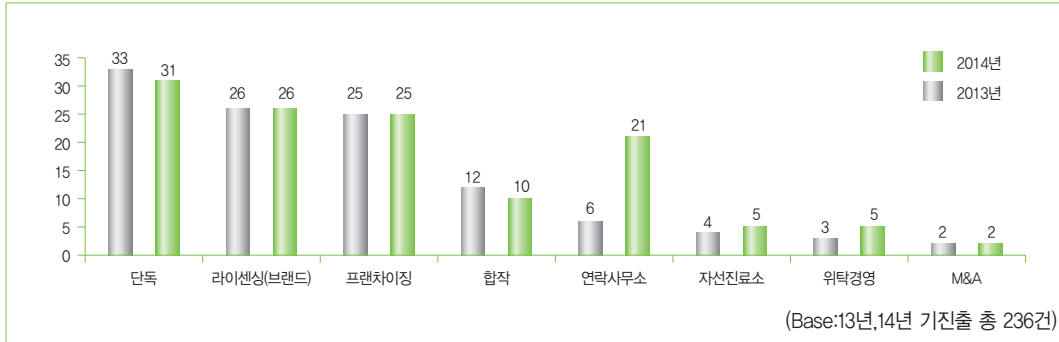
[그림 7] 2012~2014 진출국가 권역별 비교



[그림 8] 2012~2014 진출국가별 비교

(2) 진출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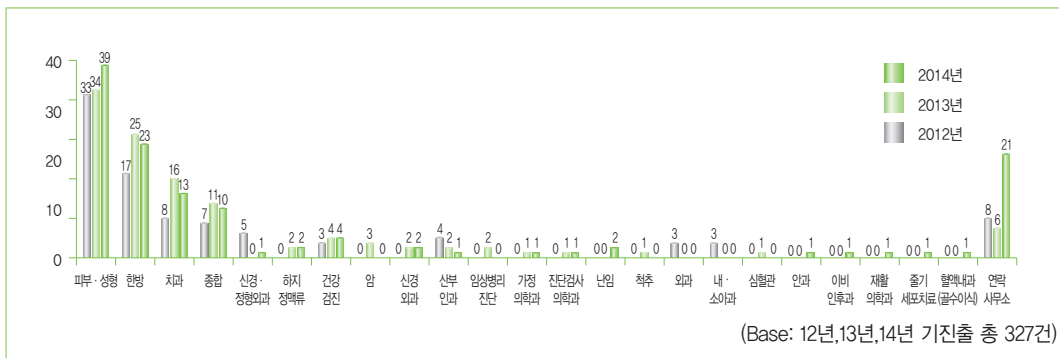
- ◎ '14년 진출 형태를 기준으로 '13년 기진출 건의 진출형태를 재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단독, 라이선싱(브랜드),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았음. 단독, 합작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진출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현지화를 위한 위탁경영은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9] 2013~2014 진출형태별 비교

(3) 진료과목별

- 진출 진료과목은 '12년, '13년도와 마찬가지로 '14년도에도 피부·성형, 한방, 치과 등의 진료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난임,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줄기세포치료, 혈액내과(골수이식) 등 신규 진출과목이 등장하여 진료과목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추세



※ 피부·성형 :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성형 모두를 포함
 ※ 치과 : 치과·성형 포함
 ※ 종합 : 자선진료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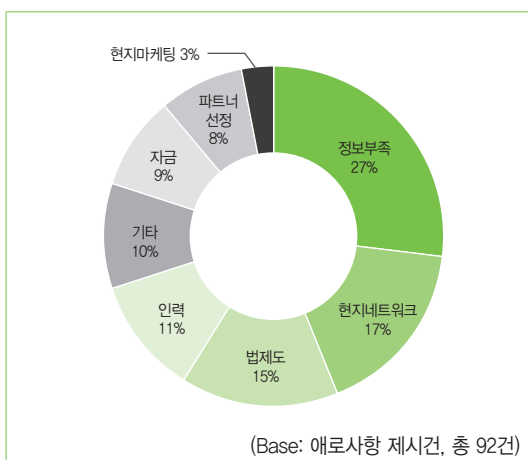
[그림 10] 2012~2014 진료과목별 비교

마. 해외진출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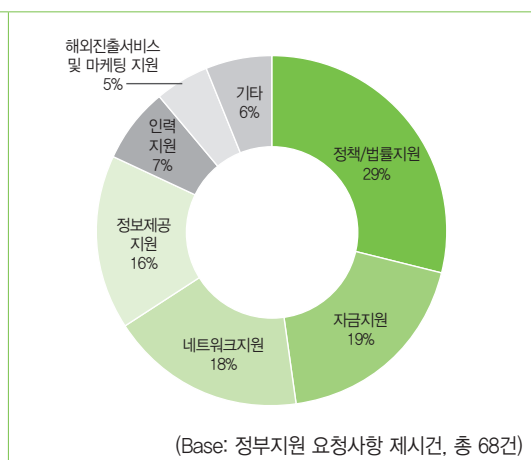
- 서술형 설문형태로 제시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고, 정보, 네트워크, 법·제도, 인력, 자금 등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분류
 - 해외진출 애로사항: 81개 설문응답 의료기관 중, 38개 의료기관이 응답(응답률47%), 애로사항 제시건 수 총 92건
 - 정부지원 요청사항: 81개 설문응답 의료기관 중, 32개 의료기관 응답(응답률 39.5%), 정부지원 요청사항 제시건 수 총 68건

(1) 해외진출 애로사항

- 해외진출 시 발생한 애로사항으로는 정보부족이 2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현지네트워크 17%, 법·제도 15% 순으로 나타남
- (정보부족) 진출대상국의 의료정책, 법률, 시장성, 경쟁사 등의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 (현지 네트워크) 현지와의 언어차, 우선순위차이, 정부체제의 차이로 인한 소통상의 어려움과 역량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 상의 애로사항
- (법·제도) 의료인면허 불인정, 인력파견, 국내 송금 제한 등이 주요 장벽으로 작용
- (인력) 현지 인력 채용상의 어려움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
- (자금)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타겟으로 한 금융조달체계의 부재



[그림 11] 2014 해외진출 애로사항



[그림 12] 2014 정부지원 요청사항

(2) 정부지원 요청사항

- 해외진출 시 정부지원 요청사항으로는 정책·법률지원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지원 19%, 네트워크 지원 18%, 정보제공지원 16%, 인력지원 7% 및 마케팅 지원 5% 순으로 나타남

〈표 6〉 2014 정부지원 요청사항

정책/ 법률 지원 (29%)	세제상 지원 방안 수립(소득공제확대방안 마련, 해외 진출 시 한시적으로 5년간 비과세 방안 검토, 의료인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위탁운영시 송출된 인력이 한국소속을 유지하게 되면 이중과세를 내야하는 문제)
	해외진출 대상 주력국가와 상호의료인 면허 추진
	해외근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외교통상부의 지원(의료분야 협력국가 아포스티유 체결, 서류준비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진출대상국의 의료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간소화 추진
	해외수익금의 국내 송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강화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분적 해외투자 및 이익환수 허용(특수목적법인설립, 해외투자허용등) 병원 해외 진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파견법은 의료직 종사자는 대상이 되지 않음)
	정부주도적 병원 건립 마스터 플랜을 국가별로 건립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 필요
	해외진출 병원에 대한 법인세제 감면
	타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시작과 신용도 제고를 위한 공인 국가기관 레터, Certificate 발급
	진출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강화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자금지원 (19%)	정부차원의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심화사업 실시(지원사업금액의 현실화)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의 국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장기자금 대출정책
	초기 리스크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정부차원의 초기경비지원확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자문료, 시장조사비용 등)
	공공투자펀드, 벤처자금 조달 등의 금융지원
	중소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진출 소요자본 지원
	파견인력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이에 대한 자금지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에도 정부자금이 지원되었으면 함
해외진출 프로젝트 Financing 옵션 확대	



네트워크지원 (18%)	정부나 지자체의 진출국가와의 협력 강화
	해외현지의 검증된 파트너 확보
	정부차원의 특정국가에 대한 의료사업 전담기구 설립(ex 중국)
	정부인력의 현지파견을 통한 의료시장 관련 자문제공
	대표처의 현지 확대 및 추가 설립 운영
	코트라, 코이카 등의 해외지역 사무소와의 연계
정보제공지원 (16%)	주요 진출국의 의료법령, 시장동향, 세수정책, 법인설립 등의 정보제공
	진출국가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보건의료수요, 경쟁의료기관, 해외진출현황, 법률, 문화 등 병원해외 진출 전문지원서비스 운영(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운영)
	교육 프로그램 구성(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 통한 자료 공유
	진출국가의 의료 법령, 규정 한국어로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국가별로 의료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한 지침서 마련
	진출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 및 사업진행 초기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개발
인력지원 (7%)	개발도상국 의료진의 한국에서의 교육지원정책(무상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체제비 지원 등)
	글로벌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필요
	지역별 전문분야별(법률, 사업, 보험, 재무, 문화적 차이)전문가 인재풀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현지이해 관련교육, 진출 진료분야 별, 언어 사이버 교육실시
해외진출 서비스 및 마케팅 지원 (5%)	해외진출 지원전문기업(컨설팅)설립, 지원: 컨설팅 지원서비스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기능까지 수행 하는 기관 설립
	진출국가 보건의료분야 법률전문가 또는 자문받을 수 있는 기관 설립
기타 (6%)	지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소규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병원들의 차별한 점검, 분위기 조성 필요
	진출지역이 다양한 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프로젝트 지원 필요

(Base: 정부지원 요청사항 제시건, 총 68건)





IV 요약 및 시사점 ...

-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요 진출국으로는 중국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 다음으로 많음
 - 중국은 북경, 상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옌타이, 이싱 등 중·소도시 중심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MENA지역은 현재 UAE로의 국내 의료기관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라크, 알제리 등의 미개척 지역에 대한 진출이 준비 중임
 - 유럽 지역의 경우, 최초의 종합병원 형태의 진출이 준비 중임
- ◎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진료과목은 점차적으로 다양화·세분화 추세
 - 성형·피부, 한방, 치과 등의 진료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난임, 안과, 이비인후과, 줄기세포치료, 혈액내과 등 신규진출과목들이 등장하면서 진료과목이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진출형태는 단독투자 및 합작 형태는 감소하고 있으며, 위탁경영 형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 또는 합작 형태의 진출에서 진출 리스크를 줄이면서 현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위탁경영에 대한 진출 선호도 증가
 - '14년도 진출형태는 자본투자가 없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 등의 진출형태가 단독진출과 함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 임.
- ◎ 진출 의료기관들의 현지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2013년도 기진출 111건의 25%가 철수한 것을 고려하여, 향후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기진출 의료기관들이 현지화에 성공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방안 수립 필요

- ◎ 집필자 : 의료수출기획팀
- ◎ 문의 : 043-713-8263
-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